

2016 멕시코 경제 환경의 위험요소

최명호 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주요 내용

- 2016년 멕시코 경제 환경의 위험요소 중 하나는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환율 문제도 멕시코의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함.
- 정치적 부패와 더불어 앞으로도 멕시코에서는 고환율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를 위협함.
- 그러나 현재 미국의 2018년 대선을 제외하면 멕시코 정치·경제에 큰 변수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 2016년 멕시코 경제 환경의 위험요소 중 하나는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음.

- 빼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멕시코 부패 방지법에 서명, 해당 법이 공포됨.
- 곧 임기가 끝나는 멕시코 집권여당 PRI(제도혁명당) 소속의 치와와 주(州) 주지사 세사르 두아르테(César Duarte)는 반부패 특임 검사제를 도입했고, 같은 당의 베라크루즈 주지사 하비에르 두아르테(Javier Duarte)는 감사 및 책임 시스템을 고안함.
 - 두 주정부에서 고안한 부패 방지법 혹은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현 지방정부 세력을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부패 관련 기소로부터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각계각층에게 비판받았음.
 - 이를 빗대어 현지 언론에서는 두 주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패 방지법’이 아닌 ‘집행유예 패키지’라고 풍자하기도 함.
- 두 명의 주지사 모두 부정축재와 공적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멕시코 검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임.
 - 지방정부가 고안한 부패 방지법의 불법적인 성격, 무엇보다 전국/중앙정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 개입한 것임.
 - 제도혁명당의 당수 엔리케 오초아는 자신의 당의 주지사들을 더 압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함.
 - 실제로 이 두 주지사의 부정부패 혐의로 인해 제도혁명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불어 제도혁명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치와와 주(州)와 베라크루즈 주(州)를 국민혁명당¹⁾에게 뺏기게 됨.
- 멕시코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구조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환율 문제도 멕시코의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함.

- 2016년 10월 현재 멕시코의 경제 상황은 거시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임.

1) 민주혁명당과 연대함.

- 연간 GDP 성장률은 2~3% 사이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임,
- 물론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2분기에 -0.2%를 기록했고, 2014년 대비 2015년 국내총생산도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인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역시 2~3%대를 기록하고 있어 물가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조짐은 없어 보임.

그림 1.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달러당 멕시코 환율



자료 : Trading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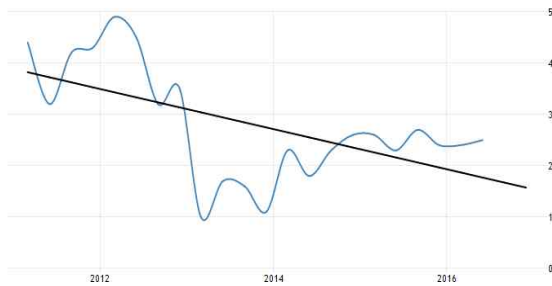
그림 2. 분기별 GDP 성장률



자료 : Trading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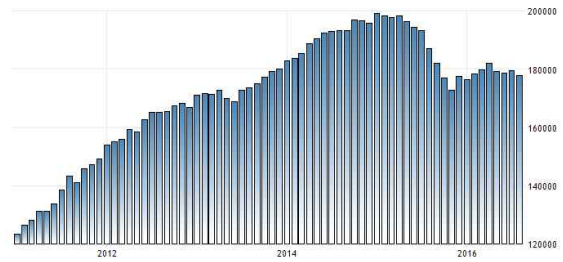
- 하지만 달러당 멕시코 페소 환율은 2012년도 달러당 13페소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
 - 중앙은행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페소 가치는 달러당 18.84페소이고, 실질적으로는 달러당 20페소에 달함.
 - 멕시코 페소의 가치는 지난 4년간 35%가 하락함.
- 멕시코 화폐량의 증가율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이며, 금리는 0.59% 정도임.
 - 실제로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멕시코의 화폐량은 오히려 줄고 있고, 2015년 이후 급락한 외환 보유량이 2016년 2분기까지 회복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50억 달러 수준으로, 2013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당시보다 1/4 수준으로 감소함.

그림 3. 연간 GDP 성장률



자료 : Tradingeconomics

그림 4. 외환보유량 추이



자료 : Tradingeconomics

그림 5.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자료 : Tradingeconomics

2 원인 분석

☒ 2016년 9월 16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베라크루즈와 치와와 주(州)가 발의한 부패방지법2)을 멕시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임기가 만료되는 정부의 부패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멕시코 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치와와 주(州)와 베라크루즈 주(州)에서 통과된 부패방지법의 경우 위계에 따라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협상하는 동안 정부는 동일한 성격의 법안의 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함.
 - 상위법과 하위법, 시행령 등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2) 발의한 두 주에만 해당됨.

제정한 법률이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임.

☒ 정치적 부패와 더불어 앞으로도 멕시코에서는 고환을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를 위협함.

- 2014년 2분기까지 13페소를 유지하고 있던 환율이 2년 사이에 상승함에 따라, 2014년 후반부터 무역, 특히 수입과 관련한 기업들은 대금 결제에 문제가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대기업의 파견직을 제외하고 해외 현지(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멕시코 내수 시장에 판매 하던 재멕시코 교민들 또한 예외 없이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짐.
- 화폐가치를 낮추면 무역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물론 국제 대금 결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환율이나 기타 시장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출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다만,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경우³⁾, 실제보다 무역수지가 더욱 좋게 느껴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무역수지가 흑자일 경우 화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흑자 정도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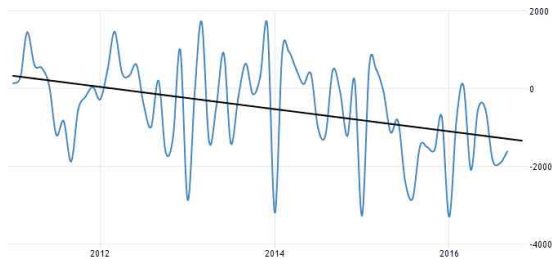
- 멕시코의 무역 관계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임.
 - 2015년을 기준으로 멕시코의 전체 수출 중 81.1%, 전체 수출의 52%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
 -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멕시코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며, 미국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무역구조임.
-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멕시코의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 정부가 고환을 정책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멕시코 페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면⁴⁾ 적어도 상당히 의도적임을 알 수 있음.

3) 즉, 달러에서멕시코 페소로 환전되는 경우를 말함.

4) 멕시코 정부가 강력하게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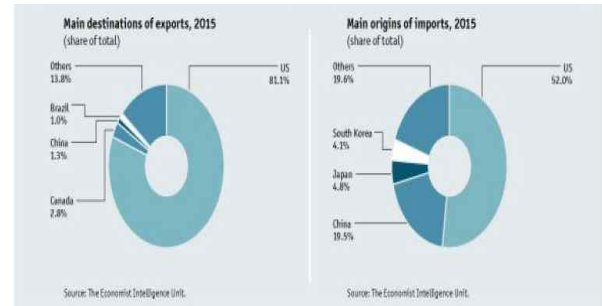
-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고환율은 오히려 멕시코의 화폐량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외환보유고 역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4. 멕시코 무역수지



자료 : Tradingeconomics

그림 5. 멕시코 수출입 구조



자료 : Economist

3

전망과 시사점

☞ 멕시코의 새로운 부패 방지법에 대한 국내외 기대는 회의적임.

- 그동안의 부정축재와 부패, 공적자금 유용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음.
- 결국 멕시코 외부, 해외 투자 등의 관점에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한동안 멕시코 경제 환경에 제일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멕시코의 모든 경제 지표는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환율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 멕시코의 국내총생산 또한 감소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그러나 미국에 편중된 무역구조와 지속적인 환율 상승, 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환 보유량이 감소추세라는 것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하며, 특히 무역 관계에서의 변수가 상당히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미국의 2018년 대선을 제외하면 멕시코 정치·경제에 큰 변수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경제상황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추이를 살펴야 할 것임. **EMERiCs**

출처

Tradingeconomics, Economist 및 보도자료